

IPO 기술만 키운 기술특례상장... 개미 무덤된 바이오

위기의 K-바이오

머니게임 변질 '바이오 투자'

코스닥 외국인 역대최대 순매수 공매도 이은 '숏커버링' 대부분

신라젠 공매도 잔고 2482억 불과 보름 전 5616억 대비 '절반수준'

바이오주의 등락에 코스닥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바이오주에 집중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숏커버링(공매도 주식을 되살리기 위해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기법)'으로 인한 반등이 지속되면서 코스닥 시장은 이제 가치투자를 기대할 수 없는 머니게임의 장으로 변질됐다. 한 때 투자자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기업공개(IPO) 시장을 이끌었던 바이오 업종은 '개미지옥'이 전락했다. 기술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기술특례상장'에만 열을 올렸던 한국거래소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숏커버링이 만든 반등장

8일 코스닥 시장은 전일 대비 20.80

〈기술특례상장 바이오주 공모가 대비 최근 1년 수익률〉 (단위: 원)

구분	공모가	현재가	증감
신라젠	15000	14650	-2.3%
애니젠	18000	7550	-58.1%
유바이오로직스	6000	5800	-3.3%
피씨엘	8000	7330	-8.4%
아스타	8000	4345	-45.7%
애플론	10000	34500	245.0%
휴마시스	2010	1400	-30.3%
엔지켐생명과학	56000	47100	-15.9%
오스테오닉	7700	2710	-64.8%
이원다이애그노믹스	6500	4625	-28.8%
아이큐어	65000	21850	-66.4%
올릭스	36000	33700	-6.4%

포인트(3.68%) 오른 585.44에 장을 마감했다. 2거래일 연속 코스닥 시장은 상승했으나 16년 만에 최고치였던 지난해 1월 29일 지수(927.05)와 비교하면 36.8% 하락한 상태다. 하지만 코스닥의 반등을 마냥 반길 수도 없는 분위기다. 이번 반등이 공매도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숏커버링'의 영향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하루 순매수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이 역시도 공매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국인 순매수는 공매도에 이은 '숏커버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매매에 따른 투기적 수요도 어느 정도는 작용했겠지만 사실상 숏커버링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이때 다시 주식을 사

들이는 것을 숏커버링이라고 한다.

특히 바이오주의 공매도 물량이 대거 출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라젠의 공매도 잔고는 지난 5일 기준 2482억원이다. 불과 보름 전인 7월 22일 5616억원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 들었다. 에이치엘비 역시 공매도 잔고는 1176억원으로 한달 전(7월 8일)보다 15.6% 줄었다.

◆기술특례상장 믿어도 되나

IPO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기술특례상장으로 입성한 기업들이 잇달아 글로벌 임상3상에서 실패하며 기대감이 사라진 탓이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현재 수익성은 낮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심사 기준을 낮춰주는 제도다. 기술특례상장은 전문평가기관 두 곳에서 기술성 평가를 거쳐, A, BBB 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가능하다.

지난 2005년 12월 헬릭스미스(옛 바이오메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71개 기업이 기술특례로 상장했다. 제약, 생명과학 등 바이오 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기술성 평

가에서 최고 수준인 AA등급을 받았던 신라젠은 최근 항암신약 후보물질 '펙사벡'의 글로벌 임상3상 조기종료로 큰 실망을 안겼다.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인보사'의 품목 취소로 상장폐지 위기를 맞은 코오롱티슈진 역시 기술성평가에서 AA등급을 받은 바 있다.

신라젠 이후 기술특례를 통해 상장한 12개 기업의 최근 1년 수익률은 평균 마이너스(-)7.1%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는 애플론(245.0%)의 착시일 뿐 11개 종목이 공모가보다 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기술성평가에서 두 번이나 낙방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가 1조 5000억원의 라이선스아웃(L/O)을 체결하면서 전문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 신라젠으로 이어진 충격에 기술특례상장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특히 올해 상반기 바이오업종이 IPO 시장을 떠날까 봐 걱정을 감안하면, 바이오주에 대한 신뢰 하락은 IPO 시장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서울 한강대로 KST인텔리전스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제휴 양해각서(MOU) 체결식 이후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왼쪽)와 김종배 KST인텔리전스 대표가 포즈를 취했다. /박승덕 기자

메트로-마카롱택시, 모빌리티 MOU

'마카롱택시' 이용 고객에 온·오프 맞춤형 콘텐츠 제공

메트로미디어(대표 이장규)는 8일 모빌리티 전문업체 KST인텔리전스(대표 김종배 정규홍)와 모빌리티 데이터 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로 메트로미디어는 온·오프라인 미디어를 통해 KST인텔리전스의 이동 차량(마카롱택시)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ST인텔리전스는 마카롱원(Marcron ONE) 플랫폼에 메트로신문의 기사를 제공하면서 모빌리티 데이터와 연계한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KST인텔리전스는 오는 2020년 출시를 목표로 현재 나와 있는 전기오토바이·초소형전기차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주행거리를 연장할 수 있는 배터리 교환 방식의 전기이동수단을 개발하고 있다. 마카롱원은 KST인텔리전스의 모빌리티 데이터 플랫폼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KST인텔리전스가 구현할 커넥티드카를 위한 사용자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에 활용된다.

또 KST의 모회사인 KST홀딩스는 빅데이터 기반의 차세대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전문기업으로 전국 최대 교통카드 발급 및 정산 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T머니)가 대주주로 있다. 이번 MOU로 메트로와 KST홀딩스는 차세대 이동수단인 전기 모빌리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메트로미디어는 무료신문 메트로를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매일 아침 시민에게 배포하고 있다. 또 법인 대상의 유료신문 메트로경제를 발간하고 있다.

KST인텔리전스 김종배 대표는 "이번 MOU로 미디어와 모빌리티 전문업체 간 데이터 사업 모델이 구현될 전망"이라며 "양사가 구축한 모빌리티 데이터는 마카롱택시 등 KST그룹의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덕 기자 bluesky3@

日 대체제 없는 카메라시장 '불매 미풍지대'

리포 韓日 경제전쟁 현장을 가다

용산 전자상가 카메라 매장

불매 장기화면 韓 카메라시장 위축 시장 하향세... 신규소비자 차단 우려

지난 7일 오후 방문한 서울 용산전자상가. 카메라를 판매하는 소니 대리점 관계자는 "손님은 아니다"라는 기자의 말에 한숨부터 내쉬며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카메라를 열심히 팔아야 할 시기에 불경기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까지 겹쳐 상황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만난 판매자들에게서는 불매운동으로 인한 불안감이 고스란히 감지됐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불매운동이 전자제품 거래 중심지인 용산전자상가의 표정도 바뀌었다. 이곳은 온라인 판매채널이 확장되는 와중에도 꾸준히 명맥을 유지하던 곳이다.

◆'불매운동 길어지면 어쩌나'

30분 가량 용산전자상가 본관 1층 매장을 다녀본 결과, 매장에 들어선 손님도 십여 명 남짓에 불과했다. 카메라와 캠코더를 주로 취급하는 매장은 더 사람이 없었다. 평일 낮 시간임을 감안 하더라도 평소와 비교하면 한산한 모습이라고 상인들은 귀띔했다. 상인 대부분은 불매운동이 카메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캐논, 소니, 니콘, 파나소닉, 올림푸스, 후지필름 등 카메라 회사가 모두 일본 회사이기 때문이다. 카메라 매장을 둘러봐도 눈에 보이는 건 대부분 일본 제품이었다. 카메라 판매자들은 불매운동이 장기



비교적 한적한 모습의 7일 용산 전자상가 모습. /송태화 수습기자

화될 경우 국내 카메라 시장 전체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대부분 카메라가 일본 회사 제품인데 소비자가 일본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미치는 영향이 그대로 판매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만난 중고카메라 판매자는 "니콘과 캐논이 쌓은 국내 신뢰도는 매우 두텁기 때문에 사는 사람은 계속 살 것"이라면서도 "다만, (카메라) 시장이 하향세에 접어들 상황에서 불매운동이 신규 소비자의 유입을 막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세운상가에서 만난 이 모(62)씨는 "카메라 판매만 40년째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카메라 기능이 발달하면서 카메라 소비자층은 과거에 비해 대폭 줄었다"면서 "남은 마니아층은 일본 브랜드를 찾는 사람뿐"이라고 말했다.

◆국산 대체제 없어 타제품에 비해선 영향 덜해

하지만 카메라 분야에선 일본 회사가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마니아층이 공고해 다른 제품에 비해 영향이 덜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최근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많은 소비자가 대체제로 국산 제품을 선택하고 있지만 카메라 분야에선 일본 제품을 대체할

제품이 전무한 탓이다. 국내 카메라 시장에서 니콘과 캐논, 소니 등 일본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다.

이날 용산전자상가에서 만난 캐논 판매자는 "몇몇 사람은 삼성 카메라가 아직도 나오는 줄 알고 있다"며 "이제 카메라 시장에 국산 제품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때 카메라 사업에 주력했던 삼성전자는 2017년 카메라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재 국내 전자 업계에서 출시되고 있는 카메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소니 제품을 사용 중인 사진 전문가 김모(30)씨는 "소니 카메라에 대한 대체제가 있다고 해도 캐논, 니콘 등 또 다른 일본 회사 제품"이라며 "혹자는 렌즈는 국내 삼양과 독일 자이스 제품을 써도 된다고 하지만 기능적 측면에서 소니 바디와 렌즈를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매 운동을 지지하고 현재 보유 중인 소니 제품은 불매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구매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필요한 바디와 렌즈가 나온다면 바로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구서윤 기자, 송태화·김수지 수습기자 yuni2514@metroseoul.co.kr